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돌아보는 한해, 다짐하는 새해
- ◎ **요람:** 내년도 교회 생활 안내책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소, 상호, 전화번호등, 변경된 사항, 올해 요람에 잘못 기재된 부분 등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총회:** 2014년 교회와 선교회를 섬겨갈 각 선교회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가 12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이 선출되기를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협력:** 성탄축하 전야제를 의미있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성도는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세례증서:** 지난 10월 6일 주일에 세례받은 성도들 세례증서 나왔습니다.
- ◎ **성경완독:** 임병숙 권사-“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시편 119: 72. 한글, 영어 성경을 함께)
- ◎ **감사:**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주신 공동체와 선교회 자선 음악회를 협력한 성도, 오늘 점심식사를 준비한 3여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 **협력:** 밀알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 판매합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개업:** 이상재 집사(박혜숙권사) Smoothie House 4/11 Beach Rd. City 전화: 309-4552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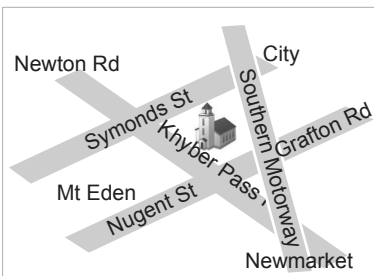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 예 배 | 시 간 | 장 소 |
|--------|-------------|--------|
| 주일1부예배 | 주일 PM 1:00 | 본당 |
| 청년모임 | 주일 PM 3:00 | Chapel |
| 수요예배 | 수요일 PM 7:30 | 본당 |
| 새벽기도 | 금요일 AM 5:50 | Chapel |
| 아동부 | 주일 PM 1:00 | Chapel |
| 중고등부 | 주일 PM 1:00 | 별관 |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2014년 11월 9일 주일 16권 45호

“저는 녹슬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0일 ‘영원한 현역’으로 불리워지던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가 평소 기도하고 다짐했던 대로 살다가 향년 103세로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소천 나흘 전까지도 북한 선교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축도를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 드리진 삶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군부 독재 시절을 건너 민주화와 첨단 정보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지난 100년의 한국사를 걸어온 동시에 한국교회의 태동과 시련, 부흥의 역사를 온 몸으로 체험한 ‘한국교회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일찌기 ‘복음의 씨앗’이었던 할아버지(방만준)와 목사인 아버지(방효원)에 이어 3대째 목사로 일제 치하 당시 보기드문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으며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평양장로회신학교 시절에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대현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며 한국교회 최초 목사 7명 중 한명인 길선주 목사와 동역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친 뒤에는 공산 치하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21년간 선교사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추방돼 귀국하여 서울 영등포교회를 담임한 후 은퇴 했습니다.

목사님의 하루 일과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글을 쓰고 연로함에도 젊은이 못지 않게 인터넷으로 해외 선교사들과 후배 목회자들이 보내온 이메일에 답장을 주고 받으며 교제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고 그가 매주 가르쳤던 ‘월요성경공부’는 1958년부터 55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특히 79년 은퇴한 뒤부터는 1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내외 집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생 모토라 할 수 있는 “녹슬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를 평생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안에서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시편 29:1-2,11
찬양대
다함께
10장. 전능왕 오셔서
5. 시편 8편
사도신경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병민 장로
사도행전 27:1-12
나무십자가 찬양대
인생 누구와 항해를 하나/이태한목사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정혜숙 권사
하박국 2:15-20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이예찬 형제

☉ 11월 교회알기

월샷 기도회: 11월 1일(토)
정책당회: 11월 22일(토)
새가족 환영회: 11월 29일(토)
대림절1: 11월 30일(주일)

☉ 11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남영수/조은희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장연식 집사
다음 주일: 최광암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박병민 장로
11월 19일 수요: 이옥화 집사
11월 19일 애찬: 정옥자 권사
11월 23일 주일: 현석호 장로
11월 23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삶속에서 본을 보여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함과 육적인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더하도록.
3. 지나온 10달을 돌아보며 일에 대한 열정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함을 채우는 남은 한해가 되도록.

11월 새벽기도회 본문

11월 14일: 요한계시록 14:1-13 어린양에게 속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11월 21일: 요한계시록 18:1-8 내 백성아,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11월 28일: 요한계시록 21:9-27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앞에서부터 시작

또한 한국교회의 갱신과 하나됨을 위해 힘을 쏟았는데 2007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4개 장로교 연합예배에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강조한 그의 설교는 아직도 많은 후배 목사와 성도들에게 회자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투항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 주관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가 되자고 호소한 그는 지난 7월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대성회’를 앞두고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며 바지를 걷은 채 손에 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 쳤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신앙을 중시하는 고인은 “길다란 시험관과 같은 신앙은 깊이는 있으나 넓지 못합니다. 반면 대접과 같은 신앙은 폭넓게 수용하는 듯하지만 깊지 않아요. 우리 모두 깊은 것을 사랑하지 말고 넓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좁고 얕다고 불평하지 말고 깊어지도록 애쓰시다.” 균형과 포용이 절실한 요즘, 고인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 갔습니다.

신학생 시절, 목사님이 섬겼던 영등포 교회가 같은 노회여서 노회주관 행사를 할 때나 특별 세미나를 할 때면 (이미 그때는 은퇴후 원로 목사) 먼 발치서 얼굴을 빚 것이 전부였고, 개인적으로 단 한마디를 나누어 본적이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준 목사의 길은 후배로서 배우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많으나 큰 어른은 없는 한국 교회는 또 한 사람의 큰 어른을 떠나 보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또 한분의 선배요, 주의 종인 당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 걸음걸음을 감히 흉내라도 내 보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 이태한목사